

아름다운 외관·천년의 생명력 ‘자랑’

(주)동희산업, 강도 높고 균열 없는 전통 전돌 복원

주목! 이 기업 이 제품

전통방식으로 생산된 양질의 전돌이 점차 사라져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최근 전통문화의 원형을 되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존의 전돌은 굵은 가마와 온도의 차이로 인해 전통방식의 전돌과 달리 냉파(추위로 얼었다가 녹는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파열되는 현상)에 약해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돌은 전돌 그 자체의 색상과 모양, 크기, 용도에 따라 분위기를 달리 할 수 있어 사찰건축은 물론 궁궐, 탑, 성곽, 탑 등의 지상건축물의 벽과 바닥재로 애용됐다. 특히 1000년의 세월에도 견뎌내는 견고함과 맛을 부릴 수 있는 조형미를 갖춘 소재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남아 있는 문화재 중 국보 30호로 지정된 분황사석탑을 비롯해 안동시내동전탑(국보 16호), 청양 장곡사 상·하 대웅전(보물 161,182호), 송림사 5층전탑(보물 189호) 등은 대표적인 전돌 건축물이다.

그러나 현대에 복원된 전돌은 문화재적 가치보다 상업성에 치우친 결과 전돌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해 왔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관을 손상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요즘 시공하는 사찰의 신·개축, 각종 문화재 시설의 개·보수 등에 사용되는 전돌 대부분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전개한 끝에, 최근 한 업체가 전통방식의 제조기술을 복원, 전통 그대로의 전돌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전돌 문화재를



단기마에서 1200℃의 온도로 구운 뒤 서서히 식혀야 냉파 등 결함이 없는 전돌을 얻을 수 있다. 동희산업 근로자들이 단기마에서 점토로 빚은 전돌을 쌓는 모습.

단기마서 열을 냉각이 ‘비법’… ‘침탄공정’ 등 특허 문화재 개·보수, 탑·외벽 등 사용… ‘불교계 희소식’

가장 많이 보유하고 전통양식의 건축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불교계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주)동희산업(대표이사 이충근, 경북 상주시 모서면 소재)은 고유 전돌과 현대 전돌의 차이를 가마와 굽고 식히는 온도에서 발견해냈다.

현대 전돌은 대량생산을 위해 길이가 긴 터널식 가마에서 섭씨 800도로 구운 뒤 순간적으로 상온에 노출시키는 서양식 붉은 벽돌 제조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

희산업은 단(單)가마에서 1200도로 점토를 구운 뒤 서서히 식힘으로써 강도 높고 균열 없는 전돌을 개발했다. 이 전돌은 불완전연소로 탄소성분을 축적시키는 ‘침탄공정’을 거쳐 해충을 방제하는 기능까지 갖췄다.

동희산업의 단기마에서 생산된 전돌은 특허청으로부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고유 전돌의 특성을 살린 ‘탄소성분을 함유한 제조법’을 인정받아 올 1월 특허를 획득했고, 10월에는 코너 벽돌과 제조장치에



전돌은 색상과 모양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진다. TV드라마인돈 세트장(위)과 담양 천불선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

고유 전돌은 내·외벽은 물론 바닥, 코너, 단 등 제한 받지 않는 전돌 48종을 개발해 서산 서광사와 담양 천불선원, 대전 금화선원 등 사찰에서도 고유 전돌을 자체로 쓰며 가치를 인정받았다. 안동 하회마을,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활용됐다.

고유 전돌은 사찰과 성보문화재에서의 효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보문화재 주변 건축자재 대부분이 시멘트로 조성돼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에서도 향후 문화재 개·보수에 고유 전돌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0541534-8267 www.jeondol.com)

박봉진 기자 bypark@buddhapia.com

부다의 경제학 (20)

불교는 가난의 종교?

불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어느 교수가 영국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필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영국의 어느 교수가 말하기를 ‘불교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종교인 듯하다. 아시아에 있는 뜻하는 나라들이 모두 불교국가야 아닌가. 그것을 보면 불교의 교리 자체가 가난을 추구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불교는 현대의 종교가 되기에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불교는 가난의 종교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한국인 교수는 세계 지도를 보면 경제적으로 절대 기아선상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각한다는 식의 시각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경전에서 재산을 어떻게 모아야 할 것인지 인도하고 있고, 그 재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불교는 보시의 실천, 사회사업의 실행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벗이 되고,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전에 나오는 신자 중에는 하층 계급의 출신자도 상당히 많은데, 그들이 부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감을 가지고 대항하였다는 식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불교가 부에 대하여 무한한 찬탄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는 오히려 인간을 타락하는 길이

불교는 재물 집착으로 타락하는 것 경계하나 가난을 극복해야 할 첫번째 대상으로 보고 수행과 함께 삶을 지탱하는 중요가치로 인정

다 종교국가를 볼 수 있는데,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불교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반문했다고 한다.

물론 불교는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경계하는 특별한 종교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재물은 크나큰 공덕의 증거로 생각하고 있음을 <아함경> 등 경전의 이곳저곳에서 알 수 있고, 재물이 많은 것에 대해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가난이 아미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예컨대 <금색왕경>에서는 빈핍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어떤 법을 괴로움이라 하는가. 이른 바 가난이다. 어떤 괴로움이 가장 힘든가. 이른바 가난의 괴로움이다.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두 가지가 다름이 없으나 차라리 죽는 괴로움 받음지 언젠가 가난하게 살지 않으리.”

적어도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한 불교에는 부자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의 벗’이라는 의식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함을 자량으로 생

끄는 위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는 그 자체로서는 부러움의 대상도 경계의 대상도 아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소비되는 과정에 의해 부의 가치가 비로소 결정된다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다.

그러나 불교는 종교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만이 아니라 부도 인간생활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가난을 지향하는 것이 불교의 가치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 재물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대항해야 한다고 하는 식의 시각도 절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가난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다. 감히 그릇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교는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가르친다. 이처럼 오토된 불교의 경제관을 바로잡아 불자는 물론 전국민에게 그 길을 제시하는 일을 더이상 미루서는 안 될 것이다.

■ 구병진(경영학 박사)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벽걸이정원

벽걸이정원은 들기루, 자연석, 천연 흙이온도로, 안개분수, 블랙등내장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100% 수작업으로 만들었으며, 정원을 집 안 또는 업소, 방안에 조성해놓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이 정원에 모셔져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하거나 전원생활을 원하는 이, 새집준후 군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가격: 대형 88만원, 소형 55만원

“대웅전 시멘트 바닥 보고 마음 아팠어요”

이충근 동희산업 대표이사

“일전에 마곡사에 갔을 때 박물관 지정돼 있는 대웅보전과 대광보전의 웅장함에 입이 벌어 지더군요. 그런데 주춧돌의 바닥은 포방전(바닥재)이 아닌 시멘트로 발라진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불교계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동희산업 이충근 사장 2년여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고유의 특성을 살린 전돌을 복원해 낼 수 있었던 것을 잘 조화시켜 최고 품질의 전돌을 생산하는 장인이 되겠다고 거듭 밝혔다.

수월관음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세로 88cm x 가로 58cm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무명의 여들을 밝게 비추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애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화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용어해설

-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꽃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여들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消災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 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화제의 지갑 음마니반메흠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남성용중지갑(검정)
여성용銀나노 지갑(적색, 보라색)

원하는 재물과 망속의 보물까지 얻는 평생 부자지갑!!

동서 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고 여러 운 일들이 묘하게 풀리고 다져줄 화를 미리 쫓는다고 하여 신통무통하게 만사가 행통 된다는 신통장구대라라라에게 나오는 육자대명왕진인 음마니반메흠 지갑이 출시 6개월 만에 수천 화제를 날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까지 마친 음마니반메흠복지갑은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까지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무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

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던 고된 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고 복권에 당첨되어 친지가족들에게 지갑을 선물하는 등 믿음의 지갑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고 만사를 행통하게 하는 육자대명왕진인을 넣고 지갑 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헛되지 않게 하는 팔길상 보병과 지갑을 가지는 순간부터 건강이 회복되고 장수하게 건강상수의 비방인 반장을 손금도급하여 부자됐으며 천원고급 소가죽에 은나노치러까지 한 지갑으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여성이 진보라색 지갑을 지니고 다니면 물질적인 고통이 해결되고 가정이 번영하며 후손들이 성공한다는 행운의 뜻이 있어 제일 인기다. 또한 불광사에서는 음마니반메흠복지갑을 사용하신 분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축원 불공까지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특별택배로 보내준다.

-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여성용장지갑 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